

잠들지 않는 한강... 서울시, 여름밤 체류형 명소 ‘탈바꿈’

여의도·독섬에 야영장 200동 마련
오후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운영
수영장·공연·영화·배달 할인 연계
CCTV·24시간 순찰,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가 8월 한 달간 여의도·독섬 한강공원에 하루 최대 200동 규모의 임시 야영장을 운영한다. 한강 수영장 야간 운영과 공연·영화, 배달 할인 등을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한강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강을 민선 9기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로 정하고 이동·여가·문화·먹거리·야영을 연계한 '24시간 한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8월 한 달 동안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잔디밭과 독섬한강공원 한강 풀풀 잔디밭에 각각 텐트 100동 규모의 임시 야영장 '한강 밤팡'을 조성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다.

이용자는 4인용 그늘막이나 텐트를 직접 가져오거나 현장에서 빌릴 수 있다. 야영장 이용료는 시범 운영 기간 무료지만 텐트 대여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이용은



‘한강 무박 2일·밤샘 한강 ON’ 현장 모습.

/서울시

민간 플랫폼을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연박과 취사는 허용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야영장과 한강공원 내 수영장, 축제, 공연, 영화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여의도한강공원 수영장의 야간 디제잉 프로그램 '퐁당뮤직'은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운영한다. 종료 시간도 기존 오후 8시부터 오후 9시로 늦춘다.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8월 8일부터 매

주 토요일 오후 7~9시 야간 디제잉을 진행한다. 여의도·독섬 한강 수영장과 잠실·난지 물놀이장은 지난 3일부터 야간 개장을 시작했으며 8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한강페스티벌_여름’ 행사도 여의도와 독섬한강공원에서 열린다. 밤새 한강을 걷는 ‘한강 나이트워크 42K’, 무선 헤드셋을 착용하고 음악을 듣는 ‘무소음DJ 파티’, ‘한강다리 밀 영화관’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야간 이용객의 음식 주문을 위해 기존 한강공원 배달존 6곳에 여의도와 독섬 임시 야영장 주변 배달존 2곳을 추가한다. 새 배달존에는 외국어 안내문과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 방법을 담은 QR코드를 설치한다.

8월에는 여의도·독섬·망원한강공원 배달존 8곳에서 배달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서울배달+땡겨요’를 이용해 2만 5000원 이상 주문하면 3000원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1만 5000원 이상 결제하면 3000원, 2만 5000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을 배달전 용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할인쿠폰과 상품권 환급을 합치면 최대 8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배달존 인근 21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위치와 주요 정보도 한강공원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5~9시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다화용기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참여하면 에코마일리지 지급한다. 배달앱 다화용기 사용 영수증을 인증하면 500마일리지, 페트

병과 캔을 반납하면 개당 100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는 행사장 주변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1000마일리지와 봉사활동 시간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임시 야영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하고 나들목과 보행로 조명을 개선한다. 한강보안관과 공공안전관이 24시간 순찰하고 야영장에는 안내부스와 상근 관리인력을 배치한다. 쓰레기 수거와 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력도 별도로 투입한다.

망원·독섬·세빛섬 나들목에서는 공연과 전시도 열린다. 망원나들목에서는 8월부터 11월까지 음악·마임·미술 공연을 진행하고, 독섬나들목에서는 8월 말부터 조각 전시와 거리공연을 선보인다. 세빛섬 나들목에서는 9월부터 신진작가 작품을 전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시 야영장 이용객 만족도와 야간 방문자 수, 평균 체류시간, 주변 상권 매출 변화 등을 분석해 향후 사업 운영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inj@metroseoul.co.kr



metro

인하대, 한진정보통신과 AI·SW 인재 양성

2028학년도부터 계약정원 운영
과정 이수 뒤 한진정보통신 채용 연계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가 한진정보통신과 함께 2028학년도부터 AI·소프트웨어 분야 채용조건형 계약정원을 운영한다. 선발 인원은 10명으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졸업 후 한진정보통신 채용과 연계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최근 한진정보통신과 AI·SW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정원 설치·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과 변봉섭 한진정보통신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인하대 컴퓨터공학과에 AI·SW 분야 계약정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교육과정과 정원 규모, 학생 선발 방식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에는 한진정보통신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다. 한진정보통신 소속 전문가를 산업체 멘토로 위촉해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 교육과 직무 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AI·SW 분야 채용조건형 인재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정원 설치·운영 업무협약식에서 조명우 인하대 총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한진정보통신 주식회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계약정원으로 입학한 학생 10명에게는 한진정보통신이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학생들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졸업 후 한진정보통신 채용과 연계한다.

인하대는 SW중심대학사업 등을 통해 운영해 온 AI·SW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진정보통신과 교과목 구성과 실무교육방식을 협의할 방침이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한진정보통신과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해 산업현장에서 즉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실무형 AI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변봉섭 한진정보통신 대표이사는 “대외 사업 확대와 AX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I·SW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인하대 학생들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채용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용조건형 계약정원은 대학이 기존 학과에 기업과 약정한 정원을 추가로 두고, 채용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 후 해당 기업 채용과 연계된다. 2023년 도입된 이후 중앙대 산업보안학과와 건양대 유무인항공학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세종대 대학원 반도체시스템공학과도 계약정원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재능 아동 꿈 키운다

아동 1명당 최대 1200만원 지원

서울 지역 학업·예술·체육 분야 재능아동에게 올해 총 8억 3000만원 규모의 교육·훈련비가 지원된다. 아동 1명당 지원액은 연간 최대 120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2026 서울아이리더 멤버십데이 꿈 결에’를 개최한

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아이리더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재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초록우산 등이 2023년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금은 생활비로 일괄 지급하지 않고 아동의 진로와 필요에 따라 사용된다. 학업 분야에서는 교재 구입비와 인터넷 강

의 수강료, 예술 분야에서는 악기 구입비와 전문 레슨비, 체육 분야에서는 훈련용품비와 전지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업·예술·체육 분야 아이리더 학생과 가족들이 참석해 활동 성과와 진로 고민을 공유한다. 국악 분야 학생의 대금 공연에 이어 분야별 학생들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진로·교육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학생들이 진로 목표를 밝히고 서울시교육청과 초록우산이 지원을 약속하는 ‘꿈서약식’도 열린다.

/이현진 기자

아시아 고소득 지역 기대수명 84.1세

고려대·경희대 연구팀
남아시아 34년간 12.6년 증가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고소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대수명이 2023년 84.1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 기대수명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남아시아로, 34년간 12.6년 증가했다.

강지승 고려대학교 교수와 연동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 34개국의 기대수명 변화와 주요 원인을 분석한 국제 공동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7월호 온라인판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논문 제목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아시아 기대수명 변화 요인 분석(Mapping drivers of life expectancy change in Asia from 1990 to 2023)’이다.

분석 결과 남아시아의 기대수명은 1990년 58.6세에서 2023년 71.2세로 12.6년 늘었다.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고소득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대수명은 같은 기간 77.5세에서 84.1세로 6.6년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여성의 기대수명은 87.1세, 남성은 81.0세였다.

기대수명 증가 요인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한국 등 고소득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중앙·동아시아에서는 뇌졸중과 허혈성 심장질환 등 심혈관질환 치료 기술의 발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이 수명 연장에 영향을 미쳤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는 예방접종 확대와 식수·위생 환경 개선으로 설사성 질환과 호흡기 감염, 결핵에 따른 사망이 줄면서 기대수명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현진 기자

미사섬, ‘생태·한류’ 품은 랜드마크로 변신

하남시, ‘K-한강 국가정원’ 구축

하남시가 미사섬 일대를 자연과 첨단 문화가 융합된 매머드급 힐링문화 거점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고홀에서 개최된 「2026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 참석해 미사섬의 미래 가치를 극대화할 개발 구상을 공표하고, 경기도의 전폭적인 동참을 공식 요구했다.

이 시장이 발표한 전략의 핵심은 미사섬 전체 부지를 효율적으로 분할해 상호 시너지를 내는 모델이다. 전체 면적의 70%에는 한강 변의 독보적인 자연 생태계를 고스란히 살린 수도권 최초의 ‘K-한강

국가정원’을 올리고, 나머지 30% 부지에는 대형 K-팝 공연장과 가상현실 및 영화 스튜디오 등이 집적된 ‘K-컬처 복합콤플렉스’를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K-한강 국가정원’은 당장 신장 둔치 일대를 아우르는 5가지 테마 정원와 명품 탐방로로 채워진다. 이와 연계되는 ‘K-컬처 복합콤플렉스’는 단순한 공연 시설을 넘어 글로벌 문화·영상 기업단지까지 유치해 하남을 한류 문화의 중심 기지로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이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정부의 국정 기조 및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며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압박했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